

전남 정원·수목원 '치유·휴식 공간'으로 활짝

지난해 방문객 474만명...37% ↑
올 순천만정원박람회 흥행 기대
"산림자원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의 정원과 수목원이 캠핑, 음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면서 휴양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정원과 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은 474만여명으로 2021년 346만여명보다 128만명(37%)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지역 정원과 수목원 방문객 수가 늘었으며,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순천만국가정원 50만명, 지방정원인 담양 죽녹원 12만명, 민간정원인 나주 3917마중 35만명,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7만명 등이다.

전남도는 우수한 산림자원 중 20개 정원 수목원을 관리하고 있다.

민간정원은 정원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장흥 하

늘빛수목정원,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연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캠핑,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개최해 전남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수목원은 천혜의 난대림을 자랑하는 완도수목원과 지리산 자락의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구례수목원, 가을이면 노란 은행길이 유명한 나주 은행나무수목원이 있다.

오는 4월1일부터는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려 정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정원 수목원을 방문해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산림생태자원을 활용,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 산림관광을 브랜드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재 기자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광주 명예시민 됐다

시·中 교류협력 가교 공로 인정

광주시는 31일 시청에서 장청강(55)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장 총영사는 2020년부터 2년 반 동안 주 광주중국총영사로 재직하며 광주시와 중국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을 했다.

장 총영사는 "광주의 명예시민으로 선

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광주와 중국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예정된 중국문화주간, 광주비엔날레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중국 간 관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넘어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함께 노력해줄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채은지 시의원 "DJ센터 사장 '갑질' 공식 사과해야"

채은지(비례·사진) 광주시의원은 직원들에게 폭언·갑질을 해 논란이 된 김삼목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사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김 사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31일 2023년 DJ센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김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침해했고 광주시 인권읍부스맨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읍부스맨은 지난달 3일 김 사장이 갑질과 폭언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판단, 김 사장에게 특별 인권 교육, 피해자 유급휴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독 부서인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엄중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관리감독 부서로서 특별 업무 감독을 해 관련 자료는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DJ센터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나 기자

주순일 "광주 복구 위원회 절반 이상 중복·부실 운영"

광주 복구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순일(사진) 광주 복구의원은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대 복구의원이었다던 2020년에 구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구정장은 위원회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주순일(사진) 광주 복구의원은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대 복구의원이었다던 2020년에 구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구정장은 위원회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을 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구정장의 약속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13개로, 구정질문 당시인 2020년 4월 기준 94개에서 19개가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각 위원회 회의 건수는 총 479회이며, 개최 실적이 없는 '식물 위원회'는 22개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단 한 차례 회의에 그친 위원회도 42개에 달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는 회의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복구가 정비한 위원회는 고작 2개(1.8%)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누락과 자문기관 설치 시 존속 기한 미지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위원회 운영 현황, 정비 계획, 정비 결과를 복구의회에 제출했다"며 "매년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으나, 법률상의 무 설치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에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오는 3~4월께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식에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19명 위촉

광주시는 장애인·청소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시는 장애인·여성·청소년·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

동하는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6기 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채워졌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2년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활동계획 공유,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강기정 시장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위원회 역할 확대와 내실화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내

용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증진 시민위원회가 촉매제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문화누리카드 오늘부터 발급

전남도는 도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2023년 문화누리카드를 1일부터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발급하며,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하면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재발급·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2만5000여 개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고통자, 장애인 등 자발적 카드 사용이 어려운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문화누리카드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재 기자

광주시, 청원경찰 5명 공개채용... 2월 21~23일 접수

광주시가 올해 신규 청원경찰 5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청사 시설 보호와 경비 등을 담당한다.

올해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23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1차 필기(3월18일), 2차 서류, 3차 체력검정,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1차 필기는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이며,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서류심사에서는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고, 최종 합격자는 3차 체력시험(약력,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과 4차 면접을 거쳐 결정된다. 무도 유단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시험 인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항지 기자